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광주극장 85년간의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극장

고양이 '씨네'가 들려주는 동화극장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추억 소환하는 매표소·영사실 아이들에게도 전하고픈 그림책

글 김영미·그림 최영호 작가 참여

아마도, 광주극장을 자주 찾는 이들이라면 이 그림책을 접하는 순간, 마음이 몽글하고 근사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 들 것이다. 언젠가 사라지지는 않을까 가슴 졸이기도 하고, 이 곳에서 '만' 볼 수 있는 멋진 영화들에 감동받으며 행복해했던 시절들도 떠오르지 않을까. 책에서 낯익은 매표소, 간판실, 커다란 스크린과 즐겨 읽는 '나만의 좌석'을 발견하고 선 입가에 자연스레 미소를 지을지도 모른다.

광주극장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림책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극장'이 나왔다. 국내 대표 그림책 출판사인 '보림출판사'에서 펴낸 책은 올해 여든 다섯이 된 '오래된 극장' 광주극장(나)과 이곳에 사는 가상의 고양이 '씨네'가 주인공이 돼 함께 들려주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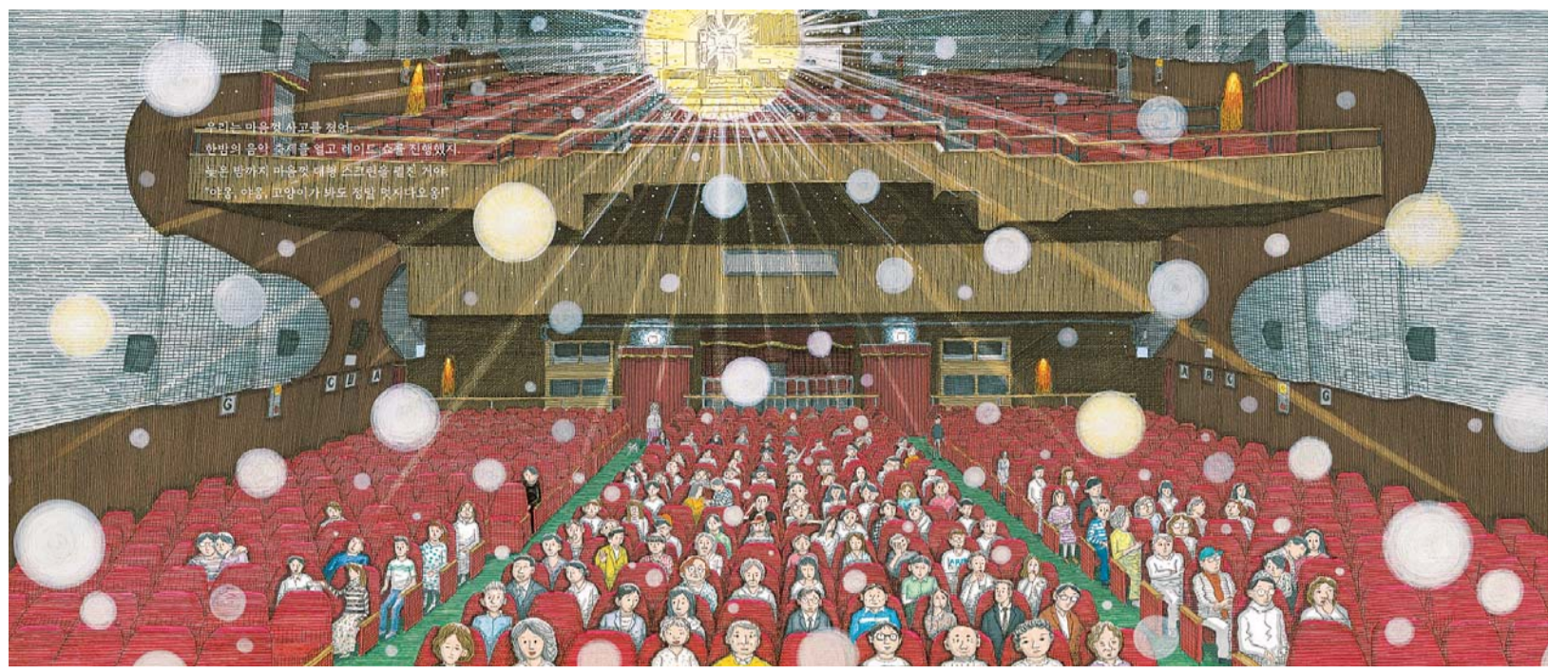
지난 2016년 봄 서울에서 활동하는 시인이자 그림책 작가 이상희 기획자는 광주극장 안주인 김기리 시인을 만나러 광주를 찾았다. 약속 시간보다 빨리 도착한 그녀는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초면의 우아한 거인'인 광주극장을 천천히 돌아보게 됐다. '떠나면 세월 저편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접한 그녀는 그림책을 짓기로 하고 작업을 함께 할 이를 찾았다. 이후 마흔 다섯이 넘는 그림책 화의를 열었고 서울에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가졌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극장'의 그림과 글은 광주 출신 작가들이 맡았다. 지금도 광주극장의 단골인 김영미 작가가 글을,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다녔고 역시 광주극장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최영호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친구가 된 너(관객·독자)와 나누고 싶어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은" 광주극장은 많은 자료와 사진들을 제공하고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그들은 85년 시간의 흐름을 공동여담과 재현했다.

책은 1968년 젓머기가 된 광주극장 화재 장면에서부터 시작한다. 나(광주극장)와 극장 터줏대감 고양이 '씨네'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극장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광주대 문예창작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야베는 스파이더맨' 등의 작품을 쓴 김영미(67) 동화작가는 시간이 날 때면 하루에 세 편의 영화를 연속해서 볼 정도로 광주극장을 사랑한다. 또 조대영씨가 진행하는 '21세기소설영화독본'에 7년간 꾸준히 참여하는 등 책읽기와 영화보기가 일상이다.

김 작가는 원고를 9번이나 고쳐 썼다. 자료가 충분치 않은 터라 혹은 놓친 부분은 없는지, 결만 건드린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았다. 작업을 하면서 '지난 기억의 파노라마'를 펼쳐놓는 기분이 들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이 아름다운 극장 이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극장'에 등장하는 최영호 작가의 광주극장 삽화.



김영미 작가

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영화는 특별한 즐거움의 길거리가 없던 시절 최고의 오락거리였죠. 영화 좋아하는 어머니 따라 어릴 때부터 목포 남일극장 등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광주에 시집 와 처음 광주극장에 왔을 때 봤던 커다란 스크린이 기억이 납니다. 영화는 꿈을 꾸게 하죠. 광주극장에 올 때마다 안타깝고 슬픈 감정이 들었어요. 쇠락해가는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들었고요. 클래식하고 매력 있는 광주극장 이야기를 쓸 수 있어 저로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김 작가는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고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책이나 극장의 창업주였던 최선진 선생에 대한 이야기 등 광주극장과 관계된 책을 몇 권 더 써보고 싶어졌다고 했다.

세종대 회화과와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한 최영호 작가의 그림은 '사실적'이다. 몇 차례 광주극장을 방문한 그는 현존하고 있는 공간을 '기록한다'는 의미를 담아 작업했다. 극장 관계자들은 영사실에서 쓰는 빛이 객석으로 어떻게 쏟아지는지 담은 사진 등 다양한 현장 사진과 자료를 제공해 그림작업을 도왔다.

"오징어! 팍퍍!"을 외치며 객석 사이를 돌아다니던 매점 아저씨의 모습, 극장 밖으로 길게 늘어선 관객들의 모습, 지금은 사라진 멕시코 다방과 북경반점, 관객이 가들할 때면 극장 식구들이 함께 나누던 '만추(滿秋)' 봉투, 극장 뒷문으로 몰래 드나들던 학생들의 모습, 1980년 5·18 당시 극장으로 숨

어들던 사람들, '영자의 전성시대' 포스터가 걸린 간판실 등은 그대로 광주극장의 하나의 역사다.

광주극장만큼 열혈팬이 많은 공간도 없다. 500여명의 후원자가 꾸준한 마음을 보태고 있고, 극장에서 행사가 있을 때면 '제 일처럼' 나서는 이들도 많다. 그림책의 마지막 장면은 낡고 오래된 스크린을 새로 바꾸는 날의 풍경이다. 고양이 씨네가 "이 모든 것이 꿈일까요, 영화일까요?"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그자리에서 묵묵히 영화를 들고 있는' 광주극장의 모습은 우리의 '오래된 미래'다.

광주극장은 그림책 속 원화를 실사 출력해 포토존을 조성할 예정이며 기회가 닿는다면 그림책 원화전시회도 열 계획이다. 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5·18 창작 뮤지컬 '광주' 고향 무대 온다



11~1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창작 뮤지컬 '광주'가 서울, 부산 등을 거쳐 드디어 광주에 온다.

'광주' 공연이 오는 11일 오후 8시, 12~13일 오후 2시·6시·9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뮤지컬 '광주'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라이브(주), 극공작소 마방진과 함께 제작한 작품으로 지난 10월 서울에서 첫 선을 보인 뒤 고향, 부산, 전주 등에서 공연했으며, 총 1만3000여명의 관객을 유치했다.

이 작품은 연출가 고선웅, 작곡가 최우정, 음악감독 이상준 등을 비롯해 배우 민우혁, 데이, 서은광(비투비) 등 최정상 창작진과 출연진이 참여한 화제작이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폭력

시위를 조장하기 위해 투입된 특수부대원(일명 편의대원) 박한수가 국가권력의 계략에도 굴복하지 않는 광주시민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고뇌를 담고 있다.

박한수 역을 맡은 민우혁은 광주공연을 앞두고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과 초연 작품으로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지만 관객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모두 함께 꾸준히 한 걸음 걸어왔다"며 "배우와 스태프 모두에게 감사하며 광주시민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입장권은 인터파크티켓에서 예약할 수 있다. VIP석 11만원, R석 8만8000원, S석 6만6000원. 문의 062-670-746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올해의 파워 미술인 100'인 영국 아트리뷰 선정... 테프네 아야스·나타샤 진발라 감독도 진입

영국 아트리뷰 선정... 테프네 아야스·나타샤 진발라 감독도 진입

김선정(사진)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영국의 유명 매체인 아트리뷰(Art.Review) '올해의 파워 미술인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4일 아트리뷰에 따르면 김 대표이사는 '2020 파워 미술인 100인'에서 72위를 기록, 국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국내 인사 중 1위를 차지했다.

아트리뷰는 2002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작가, 예술가, 큐레이터, 비평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1년간 활동을 종합 평가한다.

아트리뷰 측은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상황 속에서도 김 대표이사는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을 추진했으며 '리얼 디멘지 프로젝트' 또한 국제 미술계



에 던지는 메시지와 여운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 제13회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테프네 아야스와 나타샤 진발라도 77위로 새롭게 진입해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명성을 재확인했다. 두 사람은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을 주제로 69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를 준비해나가고 있다. 이밖에 이번 비엔날레 참여작가 세실리아 비쿠냐가 17위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LOTTE CINEMA | 중랑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이웃사촌
2관 런
3관 더프롬
4관 이웃사촌
5관 이웃사촌
6관 도굴
9관 도굴, 잔칫날
7관 씨네카를 런,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8관 씨네카를 프리기 데스데이

시간 속의 도시
2020. 12. 3.(목) ~ 2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광주시립발레단 제127회 정기공연
잠자는 숲 속의 미녀
2020.12.18(금) ~ 2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GAC기획공연 -포시즌
선우예린 피아노 리사이틀
2020. 12. 30(수)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